

# 이상 폭염...광주·전남 곤충데 습격 공포

### 갈색날개미갈개충 수백마리 상가·주택 날아들어 민원 빗발 농작물 수액 빨려 전남 울 1596ha 피해...대책 마련 시급

외래 해충이 도심과 농촌을 가리지 않고 습격하고 있다. 불철 이상기온 현상과 기록적인 올 여름 폭염 탓에 외래 해충의 생존환경이 변화됐고 이에 따라 개체수도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을 습격한 외래 해충 가운데 대표적인 갈색날개미갈개충의 경우 수확을 앞둔 농가에는 농작물의 막대한 피해를, 도심 주민에게는 혐오감과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폭염 등 기후변화로 도심까지 습격 = 광주시 남구는 봉산동, 노대동, 광주대부근(진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곤충 때가 출몰한다는 민원이 잇따라 수시로 긴급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출몰하는 곤충 때는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갈색날개미갈개충으로 지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접수된 민원만 무려 30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충 때가 수백 마리씩 상가와 주택 등 밝은 곳을 찾아 날아들면서 상인들은 영업에 지장을 받고 주민들의 경우 혐오감으로 느끼고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남구는 전했다.

서구에서도 올 여름 해충 방제 민원이 3건 접수되는 등 광주 곳곳에서 갈색날개미

갈개충 출몰에 따른 해충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갈색날개미갈개충은 수년 전부터 광주에서도 목격됐으나 올 여름에는 유독 개체수가 급증했다. 불철 이상기온 현상으로 부화시기가 1~2주 빨라졌고 장마철 적은 강수량으로 부화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록적인 폭염과 도시 열섬효과도 개체수 변화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여겨진다. 연 1회 부화하던 기존 특성을 깨고 휴면기 없이 연 2회 부화하는 사례가 국내 처음으로 광주에서 한 공원에서 최근 확인됐기 때문이다.

◇2011년 첫 발견 후 농가 피해 급속 확산 = 갈색날개미갈개충은 수확기를 코앞에 둔 농작물에도 막대한 타격을 줄 조짐이다.

갈색날개미갈개충은 사과, 배, 복숭아, 매실, 밤, 감, 블루베리, 산수유 등 과실수와 활엽수 등에 내려앉아 수액을 빨아먹어 가지를 말라죽게 하고 과실로 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품질도 떨어뜨린다. 해충 분비물로는 과실에 그을음병 피해를 준다. 가느다란 나뭇가지 표면을 뚫고 알을 낳았다가 이듬해 부화하는 특성상 한



광주시 남구의 한 상가 출입문에 갈색날개미갈개충 수백마리가 날아와 붙어있다. <광주 남구청 제공>

번 출몰하면 올해 농사는 물론 이듬해 농사까지 망치게 하고 있다.

전남도가 확인한 피해면적만 ▲지난 2012년 270ha ▲2013년 284ha ▲2014년 314ha ▲2015년 379ha ▲2016년 1596ha (농경지 1202ha·산림 393ha)로 폭발적으



갈색날개미갈개충 유충(흰색)이 감나무 잎에 붙어 열매로 가는 양분을 빨아먹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제공>

로 늘고 있다. 농가수로는 지난 7월 말 기준 2464 농가로 순천시(953 농가 678ha), 구례군(1150 농가 390ha), 곡성군(220 농가 82ha), 보성군(98 농가 36ha)의 피해가 두드러진다. 갈색날개미갈개충과 함께 외래 해충인 꽃매미 피해도 곡성군 포도 농가에서 소규모(0.4ha)로 발생하기도 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최덕수 연구사는 “갈색날개미갈개충이 급속 확산한 것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충 생존환경 변화, 농경지 인근 야산에 대한 방제 부족 등이 원인”이라며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제기법과 성충 포획 장치를 개발, 보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연 1회 부화 갈색날개미갈개충 이상고온에 생태특성 변화

### 광주 도심공원에서 연 2회 부화 첫 확인

폭염 등 이상고온 현상이 외래해충인 갈색날개미갈개충의 번식과 부화 등 고유 생태 특성까지 변화시킨 사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여름철(7~8월) 나뭇가지 속에 알을 낳고 연 1회 부화(4~5월)에만 부화하는 특성을 가진 갈색날개미갈개충이 올 봄에 이어 여름철인 8월에도 부화한 사례가 최근 광주의 한 공원에서 관찰됐기 때문이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최덕수 연구사(농학박사)는 지난 15일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공원에서 갈색날개미갈개충의 부화 사실(사진)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해충도감을 비롯해 국내 학계에서 연 1회 부화에만 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갈색날개미갈개충이 여름철에도 부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이다.

곤충생태 전문가인 최 박사는 외래 유해



해충으로 분류된 갈색날개미갈개충이 지난 2011년 전남에서는 구례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꾸준히 추적·연구활동을 벌여왔다. 그러던 중 지

난해 광주 도심에서 갈색날개미갈개충 개체수가 급증한 사실을 주목하고 추적, 관찰한 결과 금호동의 한 공원 수목에서 최근 부화한 유충을 목격했다는 것이다.

최 연구사는 “광주 도심 공원에서 10여 개체 정도 확인됐고 그 원인으로서는 이상 폭염과 도심 열섬 현상이 배경이 된 것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면서 “갈색날개미갈개충이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도심 주민에게도 적잖은 불편을 주는 만큼 지속적으로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방제대책을 내놓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완도서 양식 전복 수십만마리 집단 폐사

### 고수온·적조 등 원인 조사

완도 금일읍과 생일면에서 양식 중인 전복이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완도군과 수산당국은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인한 바닷물 고수온 현상과 최근 주변해역에 출현한 적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복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일 완도군과 남해수산연구소에 따라

면 지난 12일부터 완도군 금일읍 전역과 생일면 일부 해상 전복양식장에서 전복 수십만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신고를 받고 있는 완도군은 피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완도군과 남해수산연구소는 전복 집단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지난 15일 폐사한 전복과 바닷물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 중이다.

남해수산연구소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다”면서 “폭염에 의한 고수온 현상, 적조, 전복의 늦은 산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폐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금일읍 화전, 감목 등 일정 해역에서 국지적으로 적조생물의 하나인 카레니아 미키토이(Karenia mikimotoi)가 관찰됐다. 15일에는 고흥 거금~소록해역에서 카레니아, 여수 백야도부근 해역에서 코

클로디니움(Cochlodinium)이 관찰되기 시작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개 지역의 바닷물이 26.6~29.6도의 고수온을 유지하고 있어 적조 개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여수 등에 적조특보 발령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도군 관계자는 “전복 양식의 적정 수온은 21~22도인 반면 현재 금일읍 양식장 주변 수온이 26도 이상인 상황”이라며 “어기들의 피해 상황을 집계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원도=정은조기자·서부취재본부장

# 차량 블랙박스 무상제공 미끼 사기행각

### 휴대전화 요금 선결제로

### 2억원대 가로챈 3명 검거

차량용 블랙박스 무상 제공을 미끼로 휴대전화요금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영광경찰청의 사용 중인 휴대전화요금 수개월분을 신용카드로 선납하던 고가의 블랙박스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사기와 방편제공 등에 관한 범법위반)로 조모(39)씨를 구속하고 남모(32)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해 7월15일 영광군 군남면 A(40)씨에게 휴대전화요금 10개월분을 카드결제를 통해 미리 납부하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180여만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최근까지 전국을 돌며 142명으로부터 2억2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행사상품이라는 말에 속아 1인당 150만~200만원을 결제했으나 통신요금과 신용카드 대금이 이중으로 청구됐다.

일부 피해자에게는 통화요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포인트가 제공됐으나 기존 통신사 요금대비 3~4배 비싸게 차감돼 피해자들이 결국 시중차보다 비싼 값에 블랙박스를 산 것과 같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업체가 무료 상품 제공이나 결제수단 변경, 신용카드 분을 카드결제를 통해 미리 납부하면 차량용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를 공짜로 주겠다고 속여 180여만원을 결제하게

/영광=박형진 기자 akrhj@

### 하도급업체에 뒷돈 받고 입찰·감독 편이

### 중견건설사 직원 9명 불구속 입건

하도급업체에서 뒷돈을 받고 공사 입찰·감독 등에 편의를 봐준 광주지역 중견건설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사 편의 제공을 대가로 하도급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정권 혐의(배임수재)로 지역 중견건설사인 J건설의 S(40)차장 등 중간간부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아파트 시공·입찰을 담당하는 차장 또는 과장, 현장소장 등이 다. J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건설사 중간간부들에게 건넸다.

승기주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원도급 건설사 직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 관행적으로 상납을 강요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은 상납 구조는 공사비용의 상승을 유발하고 80여차례에 걸쳐 1500만~9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J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

롭게 하지 말아달라”, “하도급 수주를 도와달라”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 범행을 은폐하려고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J씨에게 가족여행 경비, 차량 구입비, 부서 회식비까지 대납하도록 했다.

J씨는 건설장비 임대료를 지불한 것처럼 허위 거래자료를 만들거나 허위 임금지급서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건설사 중간간부들에게 건넸다.

또 공사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배임수재)로 하도급업체 대표 J(40)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80여차례에 걸쳐 1500만~9000만원 총 2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J씨로부터 “현장 감독을 까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조건 만남’ 대학생 위협...등록금까지 빼앗은 10대들 탈미



○...알고 지내던 10대 소녀가 ‘조건 만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모델로 쳐들어와 상대남을 위협, 등록금으로 쓸 예금까지 빼앗은 10대 청소년 3명이 경찰에 탈미.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3명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동네 후배 A(15)양과 함께 있던 대학생 B(20)씨를 때리고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체크

카드에 든 예금 180만원까지 빼앗아 달아났다는 것.

○...“단 한번의 실수로 등록금까지 빼앗겼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금을 인출한 편의점, 모텔 CCTV 등을 소년 3명이 경찰에 탈미. ○...16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3명은 지난 10일 오후 8시께 광산구 우산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동네 후배 A(15)양과 함께 있던 대학생 B(20)씨를 때리고 위협해 현금 30만원과 체크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 토지, 6000평

##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